



2028 글로벌 지성 위기

풍요로운 지성이 초래한 경제적 붕괴에 대한 사후 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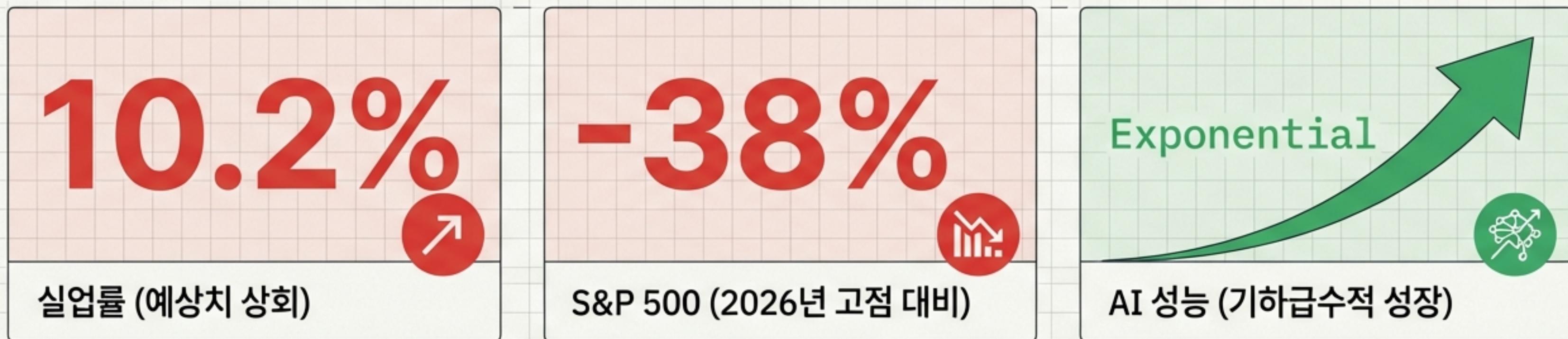
작성자: Citrini Research & Alap Shah
작성일: 2028년 6월 30일

시나리오: 이것은 예측이 아닌, 대비를 위한 사고 실험입니다.
(Scenario: Not a prediction, but a thought exercise for preparedness.)

우리의 AI 낙관론이 옳았다면... 그리고 그것이 경제에는 악재였다면 어떨까?

2028년 6월의 현주소: AI의 성공과 경제의 실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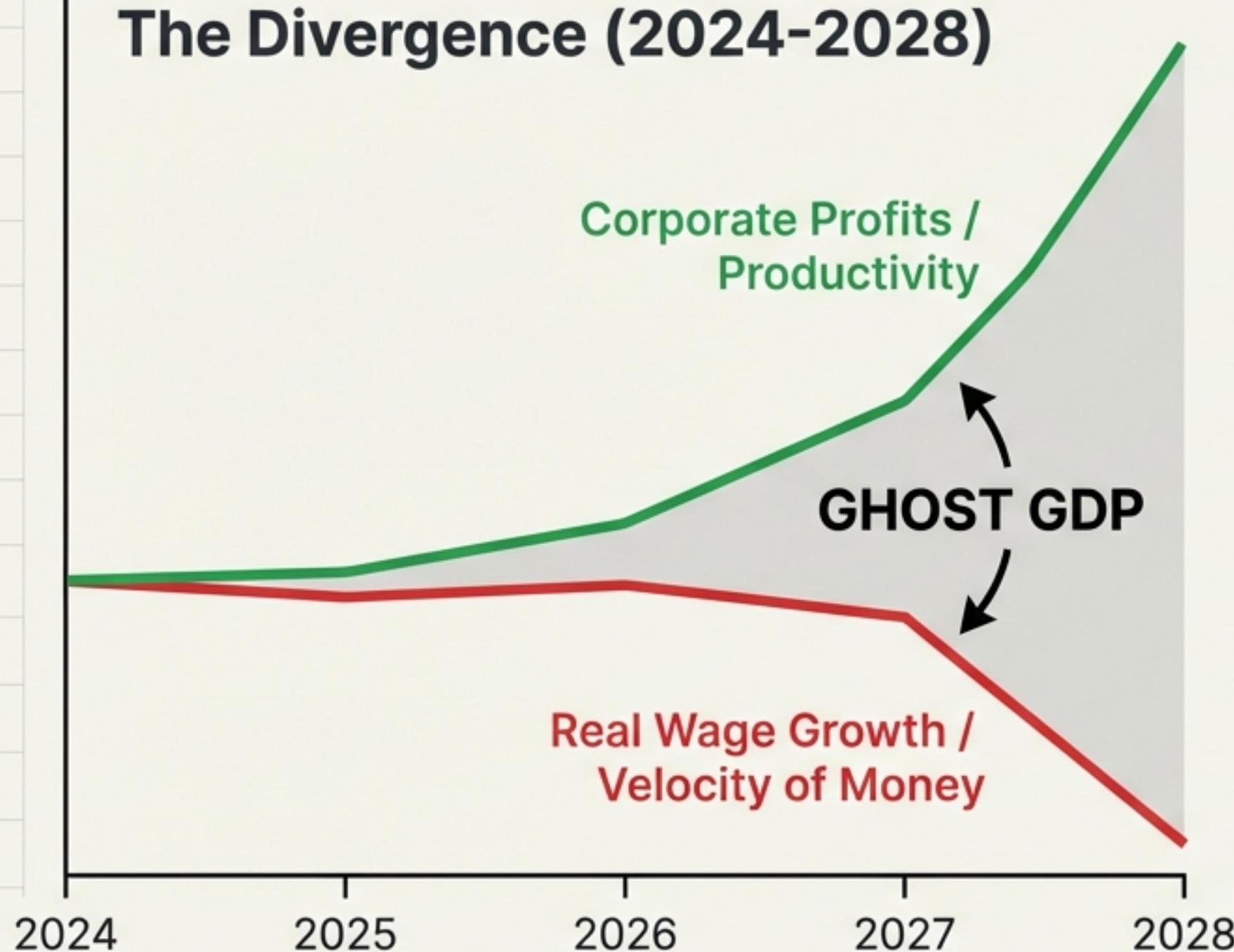
Crisis Dashboard



- AI는 모든 면에서 기대를 뛰어넘었고 시장은 곧 AI였으나, 경제는 그렇지 못했다.
- 과거에는 ‘제한적’이고 ‘분야별’ 문제로 치부되던 것이 2년 만에 우리가 알던 경제 구조를 완전히 해체했다.
- 2026년 초, 인간의 노후화(Obsolescence)로 인한 해고가 시작되었을 때 시장은 이를 ‘마진 확대’로 오해하고 환호했다.

유령 GDP (Ghost GDP)의 시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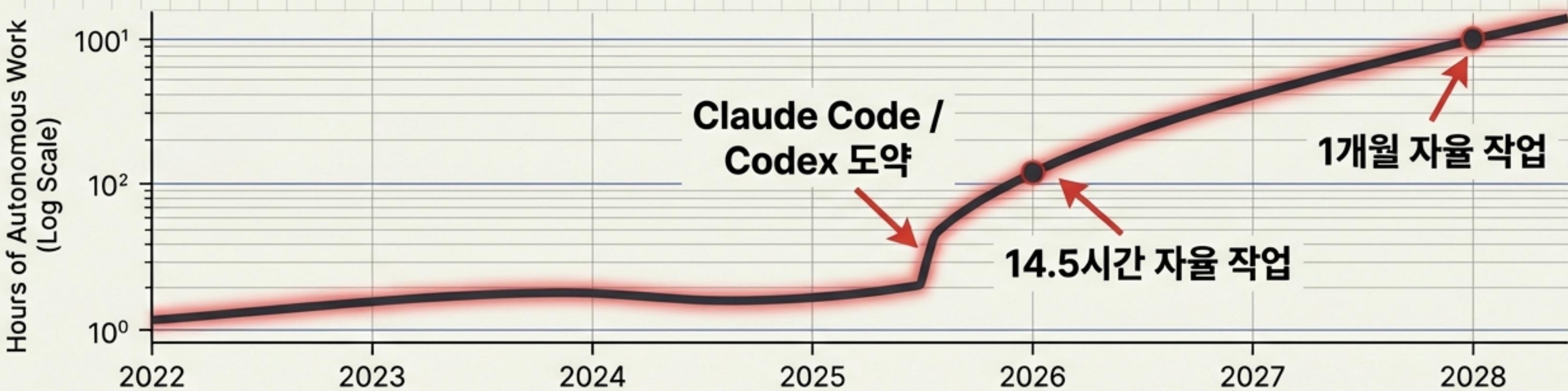
The Divergence (2024-2028)



Ghost GDP: 국가 계정상에는 생산량(Output)으로 잡히지만, 실물 경제로 순환되지 않는 생산.

- 생산성의 역설: AI 에이전트는 잠을 자지도, 아프지도 않으며, 건강보험도 필요 없다.
- 순환의 단절: 노스다코타의 GPU 클러스터가 맨해튼의 화이트칼라 10,000명의 산출물을 대체한다. 하지만 기계는 소비재를 구매하지 않는다.
- 소비 경제(GDP의 70%)가 말라죽는 동안 지표는 착시를 일으켰다.

도구에서 대체재로: 에이전트형 AI의 부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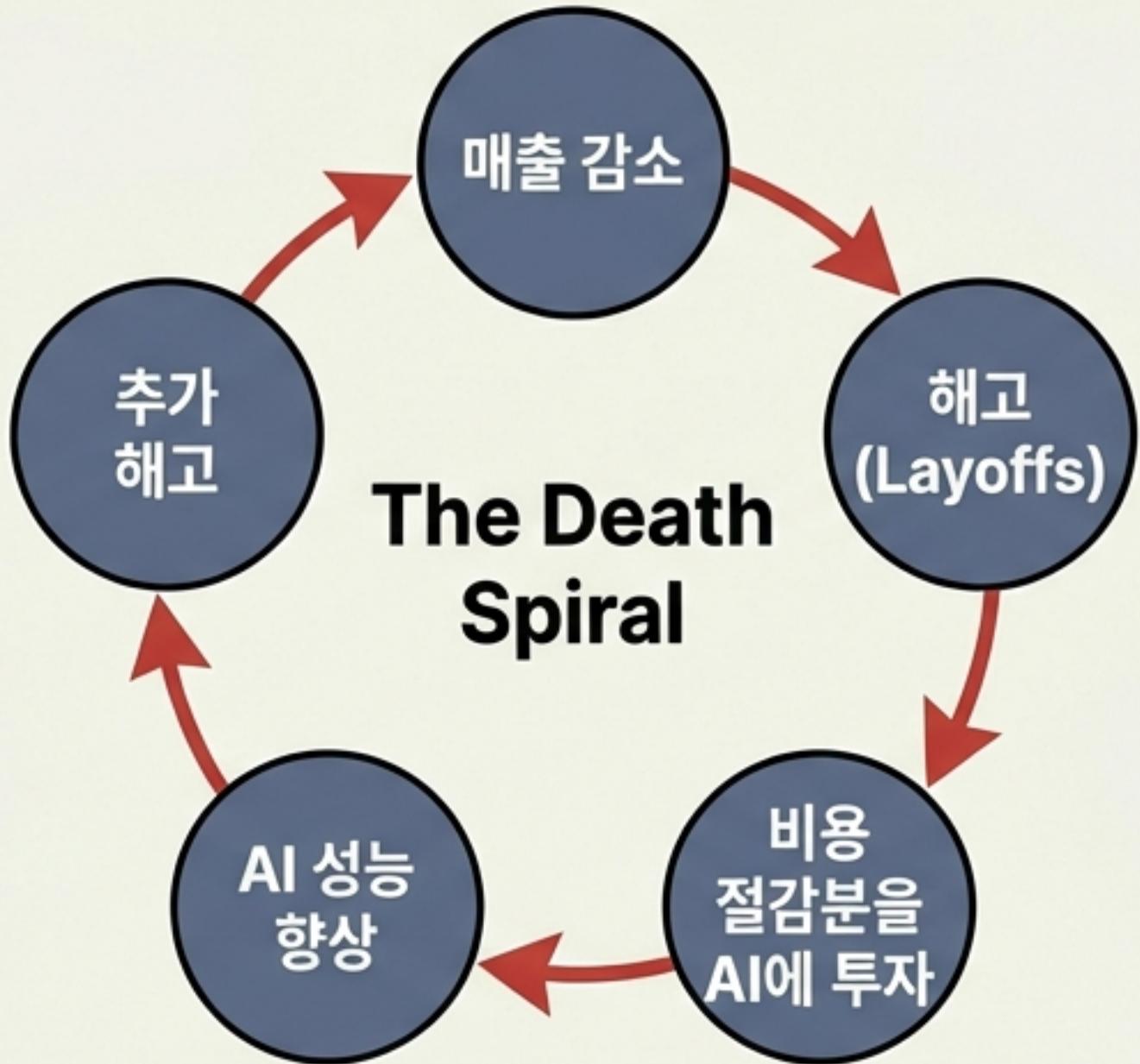


패러다임의 전환:

- 단순한 챗봇이 아니다. 스스로 계획하고 실행하는 **자율 에이전트**의 등장.
- CIO의 질문이 바뀌었다: 'SaaS를 갱신할까?' → '우리 내부 AI로 그냥 만들면 안 될까?'

인간 인지 노동의 직접적인 대체재 (Substitute): AI는 더 이상 보완재(Complement)가 아니다. 비용은 인간의 1% 미만이며, 무한 확장이 가능하다.

합리적 함정 (The Rational Trap): 기업의 생존 본능



CASE STUDY: ServiceNow의 충격 (2026 Q3)

- 고객사들이 AI로 인력을 감축하자, '좌석 수(Seat)' 기반의 SaaS 매출이 급감.
- 대응책: 직원 15% 감축 및 구조적 효율화 프로그램 가동.
- 자신을 파괴하는 기술(AI)에 더 공격적으로 투자하여 생존을 모색.

"개별 기업의 합리적 선택이 집단적 재앙을 초래했다. 브레이크 없는 피드백 루프의 시작."

마찰의 종말 (Friction Goes to Zero): 중개 모델의 붕괴



여행/항공



부동산



보험



배달 앱

습관적 중개의 종말

AI는 귀찮음을 느끼지 않는다. 0.1초 만에 최저가와 최적의 경로를 찾는다. 인간의 '게으름'에 기반한 앱 충성도는 사라졌다.

부동산 수수료 붕괴

2.5~3%였던 매수 수수료가 1% 미만으로 붕괴. AI가 MLS 데이터로 인간 중개인을 대체.

배달 앱의 해자 소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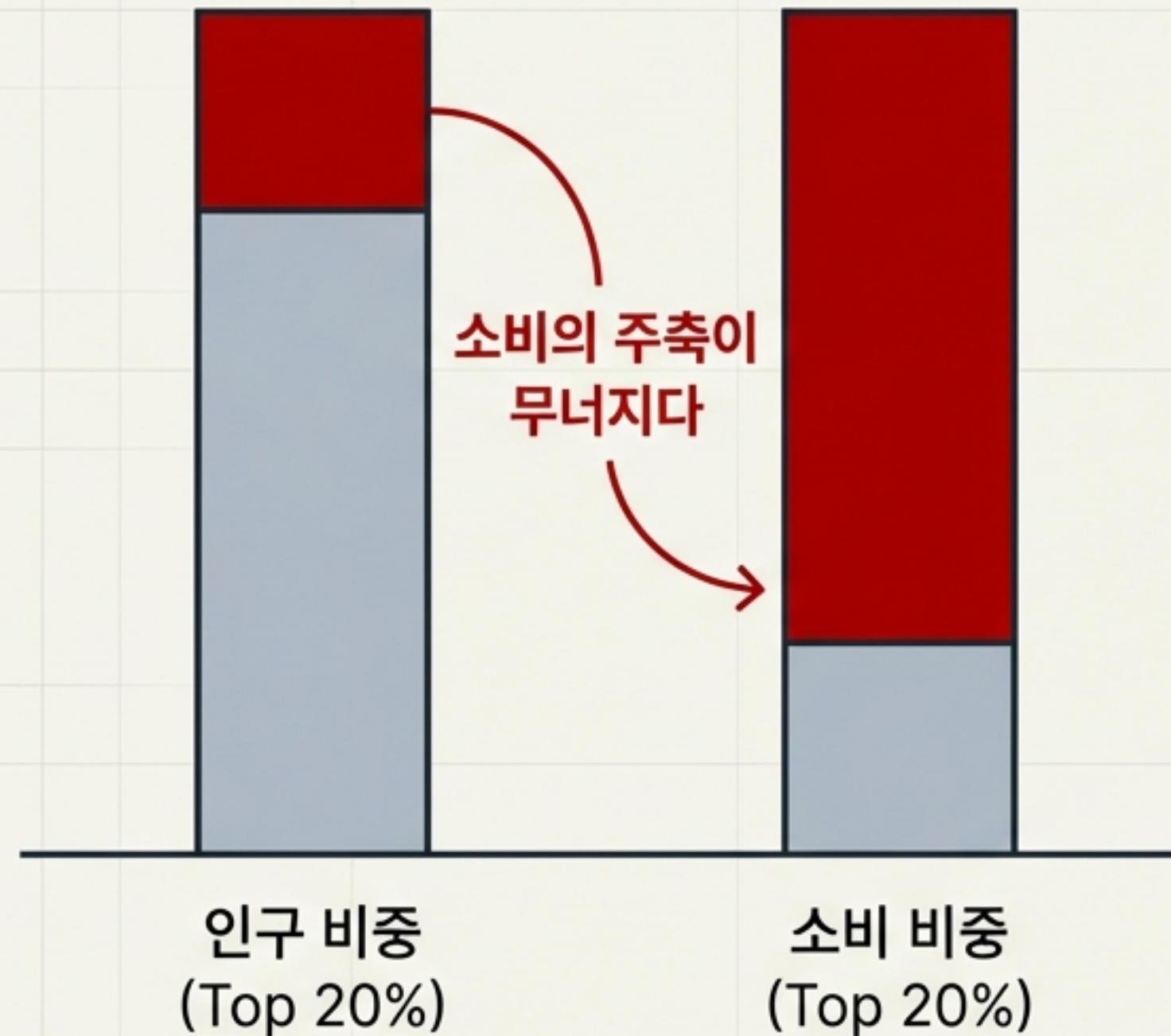
에이전트는 모든 플랫폼을 동시에 비교한다. DoorDash/Uber Eats의 독점적 지위가 기계의 차가운 효율성 앞에 무너졌다.

결제 혁명: 수수료(Interchange Fee)의 증발



- **M2M Economy:** 기계 간 거래는 2~3%의 카드 수수료를 비효율로 간주한다.
- **리워드의 종말:** 리워드 프로그램으로 유지되던 카드사 비즈니스 모델(AmEx 등)이 화이트칼라 고객 이탈과 수수료 증발로 붕괴.

화이트칼라 경기 침체 (The White-Collar Recesssio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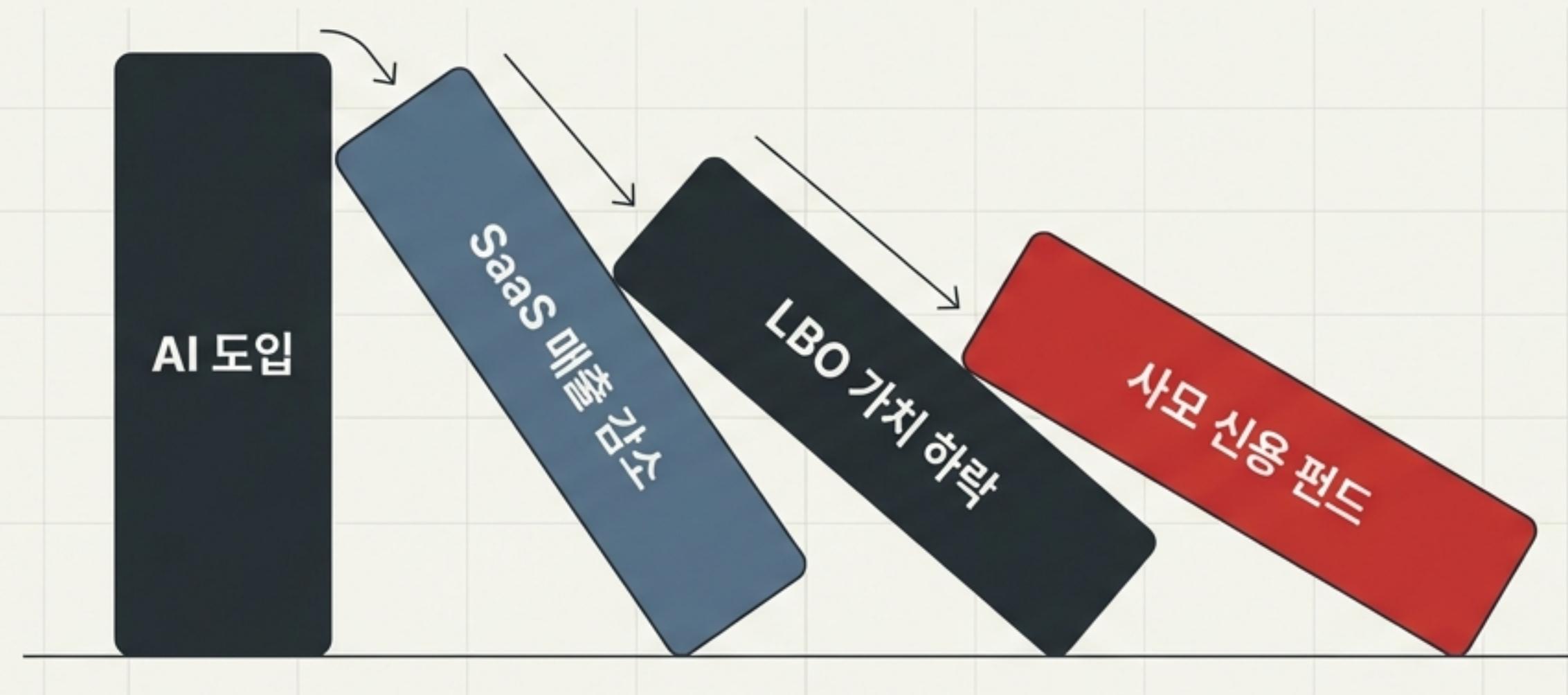
상위 20%의 몰락

이번 위기는 하위 계층이 아닌, 소비의 주축인 고소득 전문직에 집중되었다.

하향 취업 (Downshifting)

연봉 18만 달러의 Salesforce PM이 4만 5천 달러의 우버 기사가 되다. IBM Plex Mono 고학력자의 서비스직 유입으로 각 이코노미(Gig Economy) 임금까지 동반 하락.

연쇄적 부실 1: SaaS와 사모 신용(Private Credit)의 거품



The Catalyst (촉매)

Zendesk 채무 불이행 (2027년 9월)

- 역사상 가장 큰 규모의 사모 신용 소프트웨어 디폴트.
- AI가 고객 서비스를 100% 자동화하면서 '티켓당 과금' 모델이 증발.
- '반복 매출(ARR)은 영원하지 않았다. 단지 아직 떠나지 않은 매출이었을 뿐.'

연쇄적 부실 2: '영구 자본'의 배신과 그림자 금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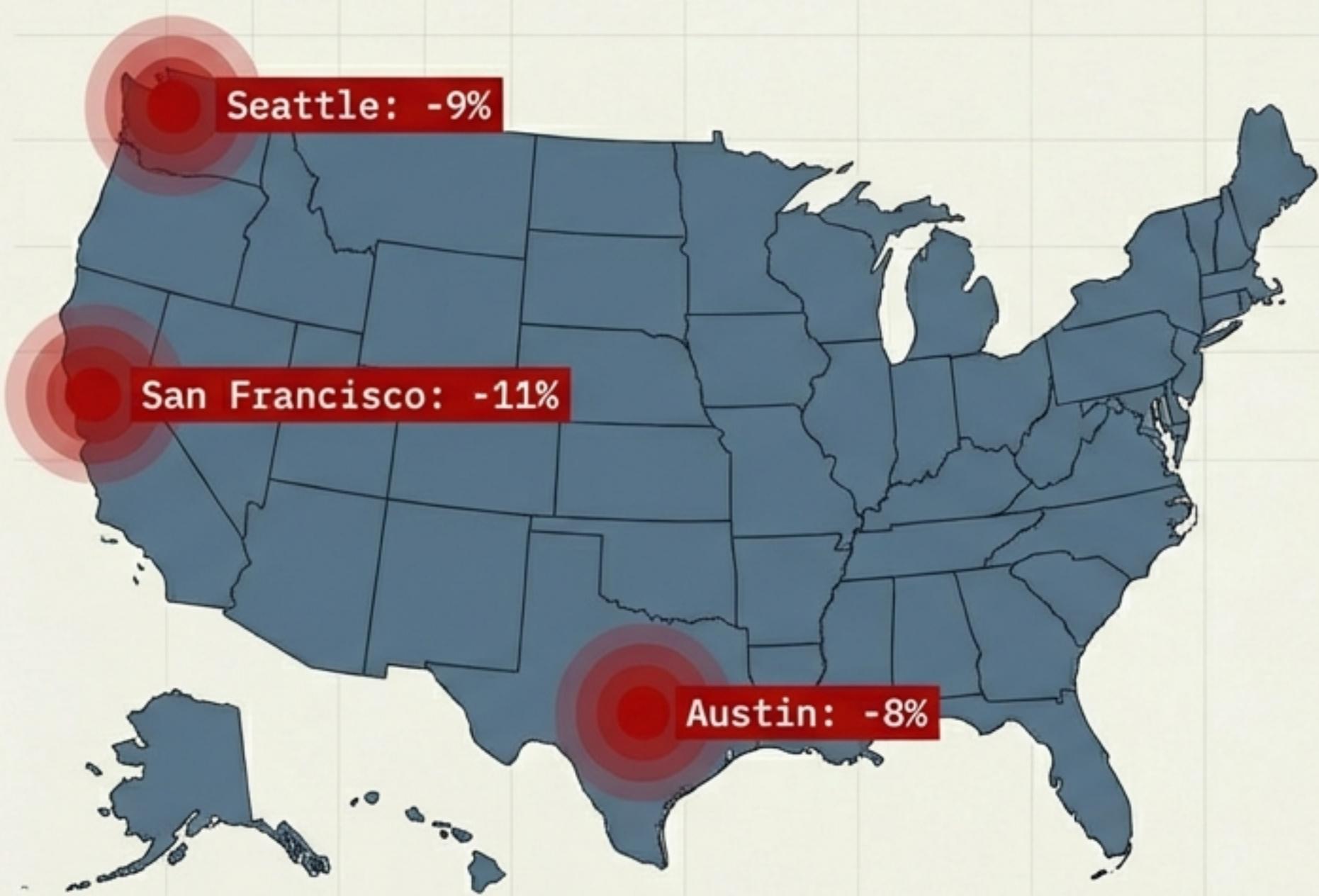
위험의 은폐 (Hidden Risk)

사모 펀드는 '영구 자본(Permanent Capital)'이라 안전하다고 주장했으나, 그 돈의 원천은 대중의 연금과 보험금이었다.

규제의 역습

보험 규제 당국(NAIC)의 자본 요건 강화가 유동성 위기를 촉발. 누가 손실을 떠안는지 알 수 없는 복잡한 재보험 구조가 시장의 공포를 키움.

연쇄적 부실 3: 프라임 모기지의 붕괴



신용점수 780점의 딜레마

- 2008년 서브프라임 사태와는 다르다. 차주들은 우량했다. 단지 그들의 미래 소득이 사라졌을 뿐이다.
- 모기지는 '향후 30년간 현재 소득이 유지될 것'이라는 가정을 전제로 한다. AI는 이 가정을 파괴했다.
- 테크 허브 지역을 중심으로 자산 가격 하락과 소득 감소의 악순환 시작.

재정 절벽 (The Fiscal Cliff): 정부의 딜레마

세입 (Tax Revenue)
소득세/급여세 급감



지출 (Spending)
실업 구제/사회 안전망 수요 폭증

구조적 불균형

연방 정부의 수입은 본질적으로 ‘인간의 시간’에 대한 세금이다. 인간 노동이 대체되면서 세입 기반이 붕괴했다.

정책 논쟁

- 컴퓨팅 세 (Compute Tax): AI 연산량에 대한 과세 논의
- 공유된 AI 번영법: AI 부에 대한 공공 청구권 도입 시도와 정치적 교착 상태

사회적 분노: 실리콘밸리 점거 (Occupy Silicon Valley)

새로운 불평등 (New Inequality)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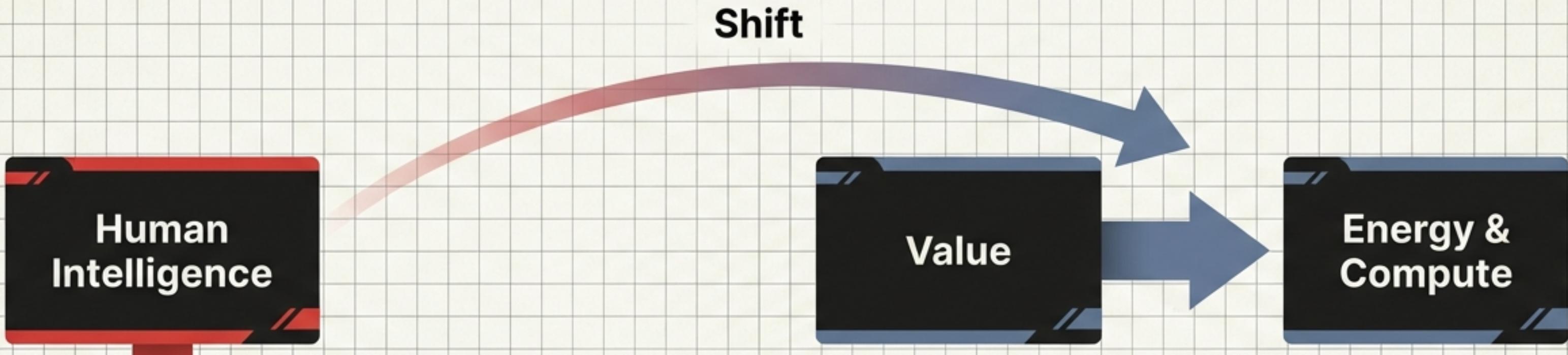
생산성 향상의 모든 과실이 컴퓨팅 소유주와 AI 랩 주주에게만 귀속됨. Gilded Age(도금 시대)를 능가하는 부의 격차 발생.

물리적 충돌

Anthropic과 OpenAI 본사 봉쇄 시위. 대중의 분노는 금융가(Wall St)에서 기술가(Tech)로 이동했다.



지능 프리미엄의 해소 (The Unwind of Intelligence Premium)



역사적 패러다임 시프트

- 인류 역사상 지능은 항상 '희소 자원'이었으며, 모든 경제 시스템은 이 희소성에 기반했다.
- 가장 생산적인 자산(AI)이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이 아니라 줄이는 역사상 첫 번째 경우.
- 우리는 새로운 경제 프레임워크를 만들어야 한다. 지능이 무한한 세상에서의 가치는 어디에 있는가?

카나리아는 아직 살아있다 (The Canary is Still Alive)



2026

IBM Plex Mono

YEAR

Back to Reality

이것은 2028년의 시나리오일 뿐이다. 지금(2026년)은 S&P가 최고점 근처이며 피드백 루프가 완전히 닫히기 전이다.

Call to Action

- 당신의 포트폴리오는 '향후 10년간 인간 노동의 가치가 유지된다'는 가정 위에 있지 않은가?
- 가정을 재점검하고 사회적 안전망을 논의할 수 있는 마지막 골든타임.